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金鎔均**

(e-mail: kygyun@cau.ac.kr)

目次

1. 서론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 2.1 연구 자료
 - 2.2 연구 방법
 3. 가능동사의 출현 현황 및 분석 결과
 4.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
 5. 결론
-

1. 서론

현대 일본어의 4단(5단)활용동사의 가능표현에는 예를 들면 가능동사¹⁾인 「書ける」와 가능표현의 일종인 「書かれる」, 「書くことができる」, 「書き得る」 등과 같은 말이 존재하는데,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실제로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다용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능동사의 점차적인 외연 확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타 활용방식의 변화인 「見れる」, 「出れる」, 「食へれる」, 「來れる」 등과 같은 ら抜き言葉의 증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²⁾ 실정이다. 이와 같은 가능동사는 활용방식(강변화·약변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4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전공 교수, 일본어학

1) 가능동사란 의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변화 즉 4단(5단)활용동사(「歩く」, 「行く」, 「負う」, 「書く」, 「呑む」, 「話す」, 「読む」, 등)가 활용방식이 바뀌어 하1단활용동사(「歩ける」, 「行ける」, 「負える」, 「書ける」, 「呑める」, 「話せる」, 「読める」, 등)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2) 林巨樹·池上秋彦編(1979)의 (『国語史辞典』、東京堂出版、p.84(鈴木丹士郎執筆))에 의하면 「見れる」, 「起

화 혼합변화)에서 보면 강변화에서 약변화로 이행한 것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室町期(1333~1603)의 용례 출현³⁾을 기점으로, 근세전·후기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⁴⁾ 세력을 확대하여 大正期(1912~1926) 이후인 현대 일본어에 이르러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⁵⁾.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대 일본어에서 다용되어 주목을 끄는 가능동사에 대하여 용례의 증가와 더불어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는 일본어 변화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근세후기, 특히 明和~天保期(1764~1843)의 대표적인 江戸語자료이자 구어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江戸洒落本⁶⁾을 대상으로 그 발달 과정 속에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을 遲速 차이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종래, 江戸洒落本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湯沢幸吉郎⁷⁾, 靄岡昭夫⁸⁾, 小松寿雄⁹⁾, 青木博史¹⁰⁾ 등의 연구와 坂梨隆三의 연구¹¹⁾를 들 수가 있다. 다만, 전자는 단편적인 자료를 통한 몇몇 용례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자는 上方洒落本을 포함한 다량의 江戸洒落本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계적인 수치에 근거한 구체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단어의 개별적인 연구(「飲める」, 「持てる」, 「言へる」, 「置ける」, 「負える」, 「讀める」, 「打てる」, 「引ける」 등)에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보인다. 또한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동종 자료이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면에서 엄연히 다른 두 자료 즉 江戸洒落本과 上方洒落本을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당시의 유력한 江戸語자료인 江戸洒落本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미해결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고찰 시에는 비슷한 시기의 上方語자료로서 대표성을 지닌, 上方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²⁾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きる, 「來れる」, 「出れる」, 「寝れる」 등과 같은 말은 ㄱ행⁵⁾단동사에서 파생된 가능동사의 類推에 의해 생겨났다고 지적된다.

3) 湯沢幸吉郎(1981) 『室町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227

4) 青木博史(1996) 「可能動詞の成立について」 『語文研究』 81、pp.52-55

5) 靄岡昭夫(1967) 「江戸語・東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変遷について」 『言語と文芸』 54、p.63

6) 小松寿雄(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東京堂出版、pp.59-61

7) 湯沢幸吉郎(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明治書院、pp.242-244

8) 靄岡昭夫, 前掲書(5), p.59

9) 小松寿雄(1982) 「近代の文法Ⅱ(江戸篇)」 『講談国語史4・文法史』、大修館書店、p.600

10) 青木博史, 前掲書(4), pp.53-55

11) 坂梨隆三(2006) 「江戸後期の可能動詞」 『近世語法研究』、武蔵野書院、pp.46-65

12) 金鎔均(2014)의 「上方洒落本에 보이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31,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77-188)에 의하면 上方洒落本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① 上方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滑稽本의 진전된 발달 양상과는 달리 병용기의 양상을 보인다. ② 활용형에서 보면 그

특히 이와 같은 연구는 江戸洒落本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는 점과 그 결과가 바로 江戸語의 경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또한 당시의 동종 자료인 上方洒落本과의 비교를 통하여 전체적인 경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검토 여하에 따라서는 이미 上方洒落本과 江戸語자료인 滑稽本과의 비교를 통하여 동서양 방언 즉 江戸語와 上方語 간의 遲速 차이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¹³⁾ 향후 연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2.1 연구 자료

연구 자료는 가능표현이 보이는 明和~天保期の 江戸洒落本[1]~[50]의 50종을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성립(간행)시기별로 보면 明和期(1764~1771) 자료가 [1]~[5]의 5종, 安永期(1772~1780) 자료가 [6]~[14]의 9종, 天明期(1781~1788) 자료가 [15]~[24]의 10종, 寛政期(1789~1800) 자료가 [25]~[36]의 12종, 文化期(1804~1817) 자료가 [37]~[42]의 6종, 文政期(1818~1829) 자료가 [43]~[46]의 4종, 天保期(1830~1843) 자료가 [47]~[50]의 4종이다. 연구 텍스트는 전부 『洒落本大成』(中央公論社)을 사용하였다. 이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江戸洒落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1]『郭中奇譚』(1769) | [2]『遊子方言』(1770) | [3]『辰巳之園』(1770) |
| [4]『南江駢話』(1770) | [5]『俠者方言』(1771) | [6]『売花新駢』(1777) |
| [7]『美地の蛸殻』(1779) | [8]『駢舎三友』(1779) | [9]『醉姿夢中』(1779) |
| [10]『南客先生文集』(1779) | [11]『世説新語茶』(1772~1780) | [12]『粹町甲閨』(1772~1780) |
| [13]『喜夜來大根』(1772~1780) | [14]『道中粹語録』(1780) | [15]『雲井双紙』(1781) |
| [16]『通仁枕言葉』(1781) | [17]『公大無多言』(1781) | [18]『富賀川拝見』(1782) |
| [19]『卯地臭意』(1783) | [20]『太平楽記文』(1784) | [21]『福神粹語録』(1786) |
| [22]『田舎芝居』(1786) | [23]『通言総籙』(1787) | [24]『古契三娼』(1787) |
| [25]『白惚鏡』(1789) | [26]『中洲の花美』(1789) | [27]『南国駢路雀』(1789) |

변화는 미연형, 종자·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⑥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13) 金鎔均, 前掲書(12), pp.178-179

- [28]『傾城買四十八手』(1790) [29]『繁千話』(1790) [30]『四ツ谷新宿西遊記』(1791)
 [31]『傾城買二筋道』(1798) [32]『手管早弓廓節要』(1798) [33]『意妓口』(1799?)
 [34]『仲街艶談』(1799) [35]『疇昔の茶唐』(1800) [36]『南門鼠』(1800)
 [37]『傾城買杓子木』(1804) [38]『螺の世界』(1804) [39]『面和俱噺』(1806)
 [40]『退屈晒落』(1806) [41]『船頭深話』(1806) [42]『通客一盃記言』(1807)
 [43]『夢の簞拍子』(1818) [44]『婦身嘘』(1820) [45]『楼上三之友』(1821)
 [46]『娼妓買指南丸』(1818~1829) [47]『潮來婦志後編』(1830) [48]『夜色のかたまり』(1832)
 [49]『夜告夢はなし』(1833) [50]『志家居名美』(1837)

2.2 연구 방법

江戸洒落本 50종에 등장하는 가능표현(단, 序·跋은 원래 문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또한 「云る」 「書る」 등과 같이 활용 어미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동사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만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을 대상으로 4단활용동사에 한정해서¹⁴⁾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입각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1) 가능동사(「歩ける」 「行ける」 「負える」 「吞める」 「話せる」 「読める」 등)
- (2) 4단활용동사 + 「-れる」형
- (3) 4단활용동사 + 「-ことができる」형
- (4) 4단활용동사 + 「-得る」형

위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먼저 江戸洒落本 50종에 나타나는 가능표현을 전부 추출하여 출현 현황을 알아본 다음에, 이를 토대로 江戸洒落本の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경향 파악 시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일본어 문법의 변천 시 예상되는 가능한 형태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고 활용형(미연형, 연용형, 종지·연체형, 이연형),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음절수(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문체(지문과 회화문)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전술한 대표적인 上方語자료인 上方洒落本과 비교하면서 전체적인 경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遲速 차이를 검토하도록 한다.

14) 여기에서는 4단활용동사 외의 가능표현인 동사 + 「-れる」형, 동사 + 「-ことができる」형, 동사 + 「-得る」형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4단활용동사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가능동사가 4단활용동사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4단활용동사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기능동사의 출현 현황 및 분석 결과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기능동사의 발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明和~天保期の 江戸洒落本[1]~[50]의 50종에 보이는 기능표현의 출현 현황을 먼저 자료별로 분류한 다음에 지문과 회화문, 그리고 활용형과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표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기능표현의 출현 현황

자료		기능표현	기능동사				「れる」형	「ことが できる」형	「得る」형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明	[1] 郭中奇譚 (1769)	미연형	2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2] 遊子方言 (1770)	미연형	1				6		2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3] 辰巳之園 (1770)	미연형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4] 南江駅話 (1770)	미연형	2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5] 俠者方言 (1771)	미연형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安	[6] 売花新駅 (1777)	미연형	1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7] 美地の蛸殻 (1779)	미연형	1				3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8] 駅舎三友 (1779)	미연형	4				2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9] 酔姿夢中 (1779)	미연형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10] 南客先生文集 (1779)	미연형	2				2			
	연용형	3							
	종자·연체형								
	이연형								

安 永	[11] 世說新語茶 (1772~1780)	미연형	1				2		
		연용형	1						
		종자·연체형							
		이연형							
	[12] 粹町甲園 (1772~1780)	미연형					2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13] 喜夜來大根 (1772~1780)	미연형	1		2		2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14] 道中粹語錄 (1780)	미연형					3			
	연용형								
	종자·연체형	2							
	이연형								
天 明	[15] 雲井双紙 (1781)	미연형				1(2)			
		연용형	(1)		<1>				
		종자·연체형	(1)						
		이연형							
	[16] 通仁枕言葉 (1781)	미연형	3				2		
		연용형	1						
		종자·연체형							
		이연형							
	[17] 公大無多言 (1781)	미연형	4				8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1)						
		이연형							
	[18] 富賀川拜見 (1782)	미연형	(1)				4(2)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19] 卯地臭意 (1783)	미연형	1				3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20] 太平樂記文 (1784)	미연형					1(1)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21] 福神粹語錄 (1786)	미연형	1				1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22] 田舎芝居 (1786)	미연형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23] 通言總籙 (1787)	미연형	1		<1>		1(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이연형								
[24] 古契三娼 (1787)	미연형					1			
	연용형								
	종자·연체형	2							
	이연형								

寛	[25] 白惚鏡 (1789)	미연형	4				2(3)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						
		이연형							
	[26] 中洲の花美 (1789)	미연형	6				2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27] 南国駅路雀 (1789)	미연형	2(2)				3(1)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28] 傾城買四十八手 (1790)	미연형	2				2		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이연형								
[29] 繁千話 (1790)	미연형	2(2)				2(1)			
	연용형	1(1)							
	종자·연체형								
	이연형								
[30] 四ッ谷新宿西遊記 (1791)	미연형	2				1(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이연형								
[31] 傾城買二筋道 (1798)	미연형		1			2(2)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32] 手管早弓廊節要 (1798)	미연형	1				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	1						
	이연형								
[33] 意妓口 (1799?)	미연형	4				2(2)			
	연용형								
	종자·연체형	3(1)	1						
	이연형								
[34] 仲街艶談 (1799)	미연형	(1)	1	<(1)>		2		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1							
	이연형								
[35] 畴昔の茶唐 (1800)	미연형	3	1			6(2)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36] 南門鼠 (1800)	미연형	1				3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37] 傾城買杓子木 (1804)	미연형	5				2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38] 螺の世界 (1804)	미연형	1	(1)			2(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文 化	[39] 面和俱嘯 (1806)	미연형	1				1(1)			
		연용형								
		종자·연체형								
	[40] 退屈晒落 (1806)	미연형	2(1)				2(1)			
		연용형								
		종자·연체형								
	[41] 船頭深話 (1806)	미연형	3	1			5			
		연용형	1							
		종자·연체형								
	[42] 通客一盃記言 (1807)	미연형			<1>		1			
		연용형								
		종자·연체형	1							
文 政	[43] 夢の船拍子 (1818)	미연형	2				1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44] 婦身嘯 (1820)	미연형		1			4			
		연용형								
		종자·연체형	1	1						
		이연형								
	[45] 楼上三之友 (1821)	미연형	1			1	1			
		연용형	1							
		종자·연체형								
	[46] 姉妹置指處 (1818~1829)	미연형					1			
연용형										
종자·연체형		1								
天 保	[47] 潮來婦志後編 (1830)	미연형					5(1)		1	
		연용형								
		종자·연체형	2							
		이연형								
	[48] 夜色のかたまり (1832)	미연형	2				2		1	
		연용형	2							
		종자·연체형								
	[49] 夜告夢はなし (1833)	미연형	3	1			6			
		연용형								
		종자·연체형	1							
		이연형								
	[50] 志家居名美 (1837)	미연형	7(1)				3			
연용형		3								
종자·연체형		1								
이연형										

* 숫자는 회화문, () 안의 숫자는 지문의 용례수를 의미하고, < > 안의 숫자는 복합동사를, 나머지는 단순동사의 용례수를 의미한다.

또한 가능표현 중에서 가능동사가 차지하는 사용률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2>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가능동사의 사용률(%)

자료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
[1]明和期	자료 5종 (1764~1771)	7 (41.2)	8 (47.0)	0 (0.0)	2 (11.8)
[2]安永期	자료 9종 (1772~1780)	22 (56.4)	16 (41.0)	0 (0.0)	1 (2.5)
[3]天明期	자료 10종 (1781~1788)	24 (44.4)	28 (51.9)	0 (0.0)	2 (3.7)
[4]寛政期	자료 12종 (1789~1800)	56 (57.2)	40 (40.8)	0 (0.0)	2 (2.0)
[5]文化期	자료 6종 (1804~1817)	19 (54.3)	16 (45.7)	0 (0.0)	0 (0.0)
[6]文政期	자료 4종 (1818~1829)	9 (56.3)	7 (43.7)	0 (0.0)	0 (0.0)
[7]天保期	자료 4종 (1830~1843)	23 (54.8)	17 (40.5)	0 (0.0)	2 (4.7)
합계		160 (53.2)	132 (43.8)	0 (0.0)	9 (3.0)

이와 함께 江戸洒落本 50종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의 출현 용례를 연어수의 순으로 <표3>으로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표3> 가능동사의 출현 용례(별개어수)

吞める(23) 云える(16) 負える(14) 食える(12) 持てる(12) 行ける(9) 読める(8) 取れる(7) 解せる(6) 住める(5) 切れる(4) 買える(3) 書ける(3) 遣える(3) 話せる(3) 歩ける(2) 置ける(2) 聞き取れる(2) 叩ける(2) 割れる(2) 会える(1) 味わえる(1) 売れる(1) 思い切れる(1) 思い出せる(1) 掛かれる(1) 書き取れる(1) 担げる(1) 利ける(1) 汚せる(1) 騒げる(1) 済める(1) 出せる(1) 突き出せる(1) 通せる(1) 解ける(1) 働ける(1) 張れる(1) 引ける(1) 踏める(1) 呼べる(1) 寄れる(1)

* () 안의 숫자는 연어수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 <표1>을 통하여 문체와 활용형, 음절수와 단순동사 및 복합동사에 따라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표2>를 통하여 가능동사의 사용률이 그 외 가능표현인 「れる」형, 「ことができる」형, 「得る」형보다 우위를 보인다는 점도 확인된다. 또한 <표3>을 통하여 소음절 동사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단순동사가 복합동사에 비하여 우위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上方洒落本과 비교 시 연어수와 별개어수의 증가가 두드러진¹⁵⁾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다.

15) 金鎔均, 前掲書(12), p.177에 의하면 上方洒落本 44종에 등장하는 연어수는 85례, 별개어수는 19례 지적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결국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 보이는 전체적인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

전술한 가능표현 출현 현황의 분석 결과인 <표1>과 가능동사 사용률의 분석 결과인 <표2>, 그리고 가능동사의 출현 용례인 <표3>, 더 나아가 江戸洒落本 50종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인정되는, 江戸洒落本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上方洒落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
- ②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중자·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③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
-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 ⑥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먼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향①이다. 자료면에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江戸洒落本과 上方洒落本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양 자료가 지닌 江戸語자료와 上方語자료로서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 당시 동서 양 방언 즉 江戸語와 上方語 간의 지역적인 면에서의 遲速 차이와 곧바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비슷한 양 자료 간의 비교 분석 결과를 <표4>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4> 江戸洒落本과 上方洒落本の 가능동사 사용률(%)

자료	가능표현	가능동사	「れる」형	「-ことができる」 형	「得る」형
江戸洒落本 50종 (1769~1837)		160 (53.2)	132 (43.8)	0 (0.0)	9 (3.0)
上方洒落本 44종 (1756~1844)		85 (39.0)	131 (60.1)	0 (0.0)	2 (0.9)

<표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江戸洒落本の 가능표현은 가능동사(53.2%), 「-れる」형

(43.8%), 「-得る」형(3.0%), 「-ことができる」형(0.0%)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가능동사가 가장 앞선 가운데 뒤를 이어 「-れる」형, 「-得る」형, 「-ことができる」형의 순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上方洒落本과의 비교 시 특징적인 사실은 가능동사의 사용률에서 江戸洒落本(53.2%)이 上方洒落本(39.0%)보다 우위를 보인다는 점과 당시 대표적인 가능표현인 「-れる」형의 사용률에서는 江戸洒落本(43.8%)이 上方洒落本(60.1%)보다 열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양 자료 간의 연어수와 별개어수의 비교 결과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전술한 <표3>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江戸洒落本의 경우는 연어수 160례, 별개어수 42례로 上方洒落本의 연어수 85례, 별개어수 19례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⁶⁾.

이와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단순히 양 자료 간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자료로서의 대표성을 감안할 경우 동서 양 방언 즉 江戸語와 上方語 간의 지역적인 면에서의 遲速 차이 즉 가능동사는 江戸語가 上方語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전술한 바와 같이 江戸語자료인 滑稽本이 上方語자료인 上方洒落本보다 가능동사에 있어서 진전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인 위와 같은 사실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향①의 반영 즉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가능동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근접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ぜん公なんぞちつとくへるものをほしい是こんなものは階無喰へねへの (駅舎三友、71上13)
- (2) (勘) 長坊や長坊や手前斗もてたと思つてむねくそが悪いぜへ (長)いゝにやモもてたかなんだかしらねへが (南客先生文集、109上7)
- (3) 何ともすめませんおもしろくすめるよふにあそびよふがうけ給りたい (公大無多言、106下5)
- (4) (お仲)うつちやッて置ないよ (深里)なぜ (お仲)なぜでもうつちやッておけるくらいならかう呼たくもなし (上同、174上10)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경향①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특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를 통하여 江戸語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발달은 上方語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江戸洒落本의 경우 上方洒落本과 마찬가지로 「-ことができる」형은 1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得る」형은 9례 보인다. 이는 上方洒落本의 2례보다 많은 것으로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표현의 확장성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데,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6) 上方洒落本은 44종으로 江戸洒落本의 50종보다 6종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양 자료 간의 연어수와 별개어수의 차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おゝつれ立て。いこいこ貴様たばこ呑^{のみ}ゑないの (遊子方言、352上8)
- (6) 一^{いつ}しよに行と。すとんだかけねは。いゝ^いゑないきせるは。(上同、352上15)
- (7) ワァゝイ いひ^いゑへねへやつさ (粹町甲閨、85下13)
- (8) 格子^{こうし}へくつついてい^いのきゑゝねへ (太平樂記文、277上7)
- (9) 何^{なに}くいつき^{のみ}ゑへるものか。(福神粹語録、304下4)
- (10) 呑^{のみ}ゑゝもしねへ酒をくらつてひてへ (傾城買四十八手、244下4)
- (11) よしねへの^{のみ}みエゝもしねへで (仲街艶談、341上10)
- (12) イェサ爰へ若^{まろ}イ者をつれましては^え申^ま得^えませぬ (潮來婦志後編、158上3)
- (13) 何^{なに}サ呑^{のみ}ゑねへ酒をすごし^{さけ}やしたからせつなく^さつてなりやせん (夜色のかたまり、407上9)

다만, 여전히 가능동사와 가능표현 「-れる」형에 비하여 용례 자체가 보이지 않는 「-
こができる」형은 물론 「-得る」형 역시 당시까지는 미발달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용형 간의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경향②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각 활용
형, 다시 말해 미연형과 연용형, 종자·연체형과 이연형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
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5>로 제시
하기로 한다.

<표5> 가능동사의 활용형별 사용률((%))

자료	활용형	미연형	연용형	종자·연체형	이연형
[1]明和期 자료 5종 (1764~1771)		6 (85.7)	0 (0.0)	1 (14.3)	0 (0.0)
[2]安永期 자료 9종 (1772~1780)		12 (54.5)	6 (27.3)	4 (18.2)	0 (0.0)
[3]天明期 자료 10종 (1781~1788)		12 (50.0)	5 (20.8)	7 (29.2)	0 (0.0)
[4]寛政期 자료 12종 (1789~1800)		36 (64.3)	7 (12.5)	13 (23.2)	0 (0.0)
[5]文化期 자료 6종 (1804~1817)		16 (84.2)	1 (5.3)	2 (10.5)	0 (0.0)
[6]文政期 자료 4종 (1818~1829)		4 (44.5)	2 (22.2)	3 (33.3)	0 (0.0)
[7]天保期 자료 4종 (1830~1843)		14 (60.9)	5 (21.7)	4 (17.4)	0 (0.0)
합계		100 (62.5)	26 (16.2)	34 (21.3)	0 (0.0)

<표5>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연형(62.5%)이 가장
앞선 가운데 뒤를 이어 종자·연체형(21.3%), 연용형(16.2%), 이연형(0.0%)의 순으

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료별로 살펴보아도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7]의 모든 자료에 있어서 미연형의 현저한 우위와 이연형의 열세가 확인된다. 종지·연체형의 경우 자료[2][7]에서 연용형에 비하여 열세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료 [1][3][4][5][6]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만큼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활용형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경향②는 인정되는 것으로 上方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②의 반영, 특히 미연형에 있어서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가능동사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근접한 예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4) (平) マアマアぐつとくつろぎの大あくらでおつしやエおつしやエいまおつしやつたてうのあそびがすめねエとおつしやるがどふすめねエな (侍)サアすめねエつといふはしんぞう子どもや女郎どもがわしが事をわりくでもいふのか (公大無多言、106下7)
- (15) 若衆やめめへー^{きん}一^{きん}斤取^て下^せへおし^きせの酒はめめ故美酒を^{きん}壺^せとつてくれといふ也 (南国駅路雀、78下16)
- (16) もふ의めん의めん. 의めん의くわんけだ. (中洲の花美、58下3)
- (17) につちへもさ^つちい^も이^けなく^つて^と도^も其^と土地^ちて^は年^はと^れね^へから (疇昔の茶唐、272下14)
- (18) しかし^{しん}ぞう^でも^く魚^ねへ^く魚^ねへ (傾城買杓子木、21上4)
- (19) (七)おめ^へに^や아^よめ^ゝへ (吉)へ^んよ^めね^へで^よこ^つち^の方^{ほう}ア^めゝ^ずと^ん字^いだ (夜色のかたまり、411下4)

이와 함께 미연형의 뒤를 잇는 종지·연체형과 연용형의 가능동사가 등장하는 예문을 몇 개 들어보기로 한다.

- (20) しかし。其やうな事で酒はめる物ではない。(遊子方言、360上17)
- (21) 月ニ一度ぐれへは。引^ッはりぐれへは買へるけれど。(喜夜來大根、144上12)
- (22) なんぞくへる^{もの}物^がご^{ぜん}すか^ね (道中粹語録、226下4)
- (23) 二人り^ねて^居るとき^いたら^め飯^くへ^さう^もね^へ (南客先生文集、101下11)
- (24) なにかよめ^やせん (四ツ谷新宿西遊記、85上10)
- (25) めもしない酒を。むりにのましたからの事だ (楼上三之友、337上1)

(20)(21)(22)는 종지·연체형, (23)(24)(25)는 연용형의 가능동사가 나타나는 예문이다.

그렇다면 가능동사가 제 활용형 중에서도 미연형에서 가장 앞서 발달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찍이 室町期에 출현한 미연형의 가능동사 용법이 고착화되어 이후 후대에까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는 것¹⁷⁾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향③은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먼저 경향③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표6>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6>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의 가능동사 사용률(%)

자료	활용형	긍정표현	부정표현
[1]明和期 자료 5종 (1764~1771)		1 (14.3)	6 (85.7)
[2]安永期 자료 9종 (1772~1780)		9 (40.9)	13 (59.1)
[3]天明期 자료 10종 (1781~1788)		8 (33.3)	16 (66.7)
[4]寬政期 자료 12종 (1789~1800)		16 (28.6)	40 (71.4)
[5]文化期 자료 6종 (1804~1817)		3 (15.8)	16 (84.2)
[6]文政期 자료 4종 (1818~1829)		4 (44.4)	5 (55.6)
[7]天保期 자료 4종 (1830~1843)		5 (21.7)	18 (78.3)
합계		46 (28.7)	114 (71.3)

<표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 사용률(71.3%)은 긍정표현의 사용률(28.7%)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 그리고 자료별로 살펴봐도 이와 같은 우위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1]~[7]의 모든 자료에 있어서 예외 없이 부정표현의 우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경향③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上方洒落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가 긍정표현의 가능동사보다 발달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다름 아닌 전술한 미연형의 진일보한 발달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연형의 진일보한 발달 양상이 부정표현의 가능동사 발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데 기인하는 것¹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江戸洒落本の 분석 결과에

17) 金鎔均(2013)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29,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274

18) 金鎔均, 前掲書(12), pp.182-183

의하면 미연형의 가능동사 총 용례 100例 중에서 부정표현이 100例로 100%의 사용률로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미연형이 부정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는 경향④는 1음절동사는 2음절동사보다 2음절동사는 3음절동사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2단활용동사의 1단화¹⁹⁾로 대변되는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향④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 음절수에 따른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과 <표3>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7>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7> 가능동사의 음절수별 사용률(%)

자료	활용형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1]明和期 자료 5종 (1764~1771)		7 (100)	0 (0.0)	0 (0.0)	0 (0.0)
[2]安永期 자료 9종 (1772~1780)		19 (86.4)	3 (13.6)	0 (0.0)	0 (0.0)
[3]天明期 자료 10종 (1781~1788)		20 (83.3)	1 (4.2)	1 (4.2)	2 (8.3)
[4]寛政期 자료 12종 (1789~1800)		47 (83.9)	6 (10.7)	3 (5.4)	0 (0.0)
[5]文化期 자료 6종 (1804~1817)		16 (84.2)	2 (10.5)	1 (5.3)	0 (0.0)
[6]文政期 자료 4종 (1818~1829)		6 (66.7)	2 (22.2)	1 (11.1)	0 (0.0)
[7]天保期 자료 4종 (1830~1843)		22 (95.7)	1 (4.3)	0 (0.0)	0 (0.0)
합계		137 (85.6)	15 (9.4)	6 (3.8)	2 (1.2)

<표7>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음절 가능동사(85.6%)가 가장 앞선 가운데 뒤를 이어 4음절 가능동사(9.4%), 5음절 가능동사(3.8%), 6음절 가능동사(1.2%)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료별로 살펴보아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1]~[7]의 모든 자료에 있어서 3음절 가능동사의 현저한 우위가 인정되는 가운데 자료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보이는 하지만 대부분 그 뒤를 이어 4음절 가능동사, 5음절 가능동사, 6음절 가능동사 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음절 동사의 진일보한 발달 양상은 전술한 <표3>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어수를 기준으로 4례 이상 등장하는 상위 단어(「呑める」(23) 「云える」(16) 「負える」(14) 「食える」(12) 「持てる」(12) 「行ける」(9) 「読める」(8) 「取れる」(7) 「解せる」(6) 「住める」(5) 「切れる」(4))에 3음절 가능동사가 모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 金鎔均(2003)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55-1, 韓國日本學會, pp.26-28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음절수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경향④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上方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음절 가능동사가 다음절 가능동사보다 발달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음절수의 다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음절수가 적으면 적을 수록 그만큼 변화가 용이하다는 이른바 언어의 편의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²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향⑤는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에 있어서 遲速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경향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동사와 복합동사의 가능동사 사용률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 1>과 <표 3>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 8>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 8> 단순동사와 복합동사의 가능동사 사용률(%)

자료	활용형	단순동사	복합동사
[1]明和期 자료 5종 (1764~1771)		7 (100)	0 (0.0)
[2]安永期 자료 9종 (1772~1780)		22 (100)	0 (0.0)
[3]天明期 자료 10종 (1781~1788)		21 (87.5)	3 (12.5)
[4]寛政期 자료 12종 (1789~1800)		54 (96.4)	2 (3.6)
[5]文化期 자료 6종 (1804~1817)		18 (94.7)	1 (5.3)
[6]文政期 자료 4종 (1818~1829)		9 (100)	0 (0.0)
[7]天保期 자료 4종 (1830~1843)		23 (100)	0 (0.0)
합계		154 (96.3)	6 (3.7)

<표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동사의 가능동사 사용률(96.3%)은 복합동사의 가능동사 사용률(3.7%)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우위는 자료별로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인 상황이다. [1]~[7]의 모든 자료에 있어서 예외 없이 단순동사의 우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당시까지 드문 복합동사의 가능동사가 등장하는 예문을 들어보기로 한다.

(26) 免角梅てなければならぬゆへ思ひ出せしこと(雲井双紙、304下8)

(27) 此所のしやれ。あまりそうぞうしくて。きゝとれぬゆへ。ここにりやくす(通言総籙、53上8)

20) 金鎔均, 前掲書(12), p.184

- (28) たびたびあきらめて見ても。思ひ切れんせんものを。(上同、55上10)
- (29) 坐しきのおもむきはあまりそうぞうしくしてかきとれぬゆへ(仲街艶談、335上15)
- (30) おれにむしをいひかけるなら目のまへで治平をつきたせそうしねへけりやア(上同、337上1)
- (31) 何やらこそそしめし合けれども作者ニとんと聞とれず(通客一盃記言、183下5)

이와 같은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경향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上方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1단활용동사 「蹴る」의 4단화의 경우, 복합동사가 단순동사보다 잔존 경향이 강하다²¹⁾는 사실과 サ행하2단활용동사의 4단화의 경우,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가 복합동사보다 빠르다²²⁾는 사실 즉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단순동사의 가능동사가 복합동사의 가능동사보다 발달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주된 원인은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간의 음절수의 다소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²³⁾으로 보인다. 음절수가 적은 단순동사가 구조적으로 음절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복합동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화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는 경향④와, 경향⑤는 그 변화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문체 간의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경향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문과 회화문 간에 있어서 가능동사의 사용률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표1>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표9>로 제시하기로 한다.

<표9> 가능동사의 문체별 사용률(%)

자료	활용형	지문	회화문
[1]明和期 자료 5종 (1764~1771)		0 (0.0)	7 (100)
[2]安永期 자료 9종 (1772~1780)		0 (0.0)	22 (100)
[3]天明期 자료 10종 (1781~1788)		5 (20.8)	19 (79.2)
[4]寛政期 자료 12종 (1789~1800)		11 (19.6)	45 (80.4)
[5]文化期 자료 6종 (1804~1817)		3 (15.8)	16 (84.2)
[6]文政期 자료 4종 (1818~1829)		0 (0.0)	9 (100)

21) 坂口至(2001) 「近世中期上方歌舞伎脚本資料に見えるナ変・下一段の四段化について」 『筑紫語学論叢・奥村三雄博士追悼記念論文集』、風間書房、p.292

22) 金鎔均(2009)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文化學報』 43, 韓國日本文化學會, pp.13-15

23) 金鎔均·石塚令子(2009) 「明治・大正期における「蹴る」の五段化について」 『외국학연구』 13-2,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138

[7]天保期 자료 4종 (1830~1843)	0 (0.0)	23 (100)
합계	19 (11.9)	141 (88.1)

<표9>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화문의 가능동사는 지문의 가능동사보다 절대적인 우위를 보인다. 전자의 사용률(88.1%)이 후자의 사용률(11.9%)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별로 살펴봐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1]~[7]의 모든 자료에 있어서 회화문의 우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향⑥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上方洒落本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본어의 활용방식 변화에 있어서 회화문의 변화 속도가 지문보다 빠르다는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회화문의 가능동사가 지문의 가능동사보다 발달한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 이는 비교적 당시 사용된 언어를 충실히 반영하는 회화문보다는 오히려 보수성이 강한 지문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본래 지문의 성격 즉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지문에 강하게 반영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²⁴⁾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 전술한 사실들은 江戸語자료로서의 江戸洒落本이 지니고 있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신뢰성이 높고, 江戸語의 전체적인 경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江戸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가 上方洒落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은 江戸語와 上方語 간의 遲速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실로 여겨진다. 또한 활용형과 부정표현 및 긍정표현, 음절수와 단순동사 및 복합동사, 문체에 따라 遲速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上方洒落本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은 사실들은 滑稽本の 고찰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어²⁵⁾, 가능동사의 통시적 고찰 시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 金銘均(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25) 金銘均, 前掲書(17), pp.268-278에 의하면 滑稽本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으로서, ① 가능동사는 상당히 진전된 발달 양상을 보인다. ②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③ 활용형에서 보면 그 변화는 미연형, 중자·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⑥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일본어 변천사의 중요한 변화 사실 중의 하나인 가능동사에 대하여 근세후기의 유력한 江戶語자료이자 구어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明和~天保期の 江戶洒落本 50종(明和期 5종, 安永期 9종, 天明期 10종, 寛政期 12종, 文化期 6종, 文政期 4종, 天保期 4종)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上方洒落本과 비교하면서 일본어 변천사 고찰 시 중요시 여겨지는 遲速 차이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가능동사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활용형,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음절수,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지문과 회화문)에서 접근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遲速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江戶洒落本에 있어서 가능동사는 上方洒落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
- ② 활용형에서 보면 미연형, 종지·연체형, 연용형, 이연형의 순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③ 부정표현의 변화 속도는 긍정표현보다 빠르다.
- ④ 음절수에서 보면 소음절 동사의 변화 속도는 다음절 동사보다 빠르다.
- ⑤ 단순동사의 변화 속도는 복합동사보다 빠르다.
- ⑥ 문체적인 면에서 보면 회화문의 변화 속도는 지문보다 빠르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하여 江戶洒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는 上方洒落本보다 진일보한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점과 활용형(미연형, 종지·연체형, 연용형, 이연형), 긍정표현과 부정표현, 음절수(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단순동사와 복합동사, 문체(지문과 회화문) 간에 따른 다양한 遲速 차이를 보이면서 발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자는 각 자료의 대표성을 감안하면 동서 양 방언 즉 江戶語와 上方語 간의 遲速 차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上方洒落本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어 변천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으로도 가능동사는 「れる」형이 의미적으로 가능표현 외에 수동·존경·자발표현으로도 사용되는 데 반하여 오로지 가능표현만을 나타낼 수 있다는 합리성과 음절수가 적어 발음하기 쉽다는 편의성으로 인하여 더욱 확대될 것²⁶⁾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술한 사실들은 향후의 연구, 특히 室町期에서 현대 일본어에 이르기까지의 통시적인 연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세전기를 대상으로 고찰하여 가능동사의 통시적인 연구의 근간으로 삼고자 한다.

26) 林巨樹·池上秋彦編, 前掲書(2)

【參考文獻】

- 金鎔均(2003)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日本學報』 55-1, 韓國日本學會, pp.26-28
- _____ (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 _____ (2009) 「近世前期 上方語에 나타나는 サ行下二段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日本文化學報』 43, 韓國日本文化學會, pp.13-15
- 金鎔均·石塚令子(2009) 「明治·大正期における「蹴る」の五段化について」 『외국학연구』 13-2,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p.138
- 金鎔均(2013) 「三馬의 滑稽本에 나타나는 가능동사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29,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261-281
- _____ (2014) 「上方西落本에 보이는 可能동사의 발달 과정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31,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167-190
- 青木博史(1996) 「可能動詞の成立について」 『語文研究』 81, pp.52-56
- 小松寿雄(1982) 「近代の文法Ⅱ(江戸篇)」 『講座国語史4·文法史』、大修館書店, pp.600-603
- _____ (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東京堂出版, pp.59-61
- 坂口至(2001) 「近世中期上方歌舞伎脚本資料に見えるナ変·下一段の四段化について」 『筑紫語学論叢·奥村三雄博士追悼記念論文集』、風間書房、p.292
- 坂梨隆三(2006) 「江戸後期の 可能動詞」 『近世語法研究』、武藏野書院、pp.51-53
- 龜岡昭夫(1967) 「江戸語·東京語における可能表現の変遷について」 『言語と文芸』 54, pp.58-63
- 林巨樹·池上秋彦編(1979) 『国語史辞典』、東京堂出版、p.84(鈴木丹士郎執筆)
- 湯沢幸吉郎(1981) 『室町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p.227
- _____ (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明治書院、pp.242-244

要 旨

本研究では日本語の変遷史の重要な変化事実の中の一つとされる可能動詞について、近世後期の有力な江戸語資料であると共に口語資料として価値が高い明和～天保期(1764～1843)の江戸洒落本50種(明和期5種、安永期9種、天明期10種、寛政期12種、文化期6種、文政期4種、天保期4種)を研究資料と選定し、考察してみた。特に、上方洒落本と比較しつつ遅速差の観点に重点を置き、可能動詞の発達過程の中で現れる全体的な傾向を中心に活用形、肯定表現と不定表現、音節数、単純動詞と複合動詞、地文と会話文とに分けて詳細に考察してみた。また、遅速の原因についても検討してみた。

その結果、幾つか特徴的な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が、それ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る。

- ① 江戸洒落本における可能動詞は上方洒落本より進歩した発達の様相が見られる。
- ② 活用形から見ると、未然形、終止・連体形、連用形、已然形の順に進行している。
- ③ 否定表現の変化速度は肯定表現より速い。
- ④ 音節数から見ると、少音節動詞の変化速度は多音節動詞より速い。
- ⑤ 単純動詞の変化速度は複合動詞より速い。
- ⑥ 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会話文の変化速度は地文より速い。

要するに、このような考察を通じて江戸洒落本に現れる可能動詞は上方洒落本より進歩した発達の様相が見られるということと、活用形(未然形、終止・連体形、連用形、已然形)、肯定表現と不定表現、音節数(3音節、4音節、5音節、6音節)、単純動詞と複合動詞、地文と会話文)間による多様な遅速の差を見せつつ発達したことが確認できた。特に前者は東西兩方言、即ち江戸語と上方語間の遅速差を意味するということから新たな発見と言え、後者は上方洒落本と一致するということから日本語の変遷史的な事実である可能性が大きいということから注目に値する。

キーワード： 江戸洒落本、上方洒落本、滑稽本、可能表現、可能動詞

투 고 : 2014. 8. 31
1차 심사 : 2014. 9. 13
2차 심사 : 2014. 10. 4